

학교 상황에서의 학습된 무기력 척도 변안 및 타당화*

조은혜** · 변주영***

Ⅰ 알기 쉬운 개요

학습된 무기력은 반복된 실패의 경험으로 인해 스스로 상황을 통제하거나 부정적인 결과를 바꿀 수 없다는 왜곡된 신념이다. 이를 무시하거나 잘못 대처하면 왜곡된 믿음 및 부정적인 자아개념과 정서가 고착화될 수 있다. 초등학생은 학습된 무기력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시기로 예방 및 완화를 위한 교육적 개입의 골든타임이다. 적절한 개입 방안을 모색하려면 초등학생의 학습된 무기력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영향요인을 연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축약형 학교 상황에서의 학습된 무기력 척도를 한국 초등학생의 맥락 및 연령에 적합하게 변안하였다. 원저자의 허가를 받은 후 전문번역가의 변안 - 이중언어능력자의 역번안 과정을 통해 원척도 문항의 속성(의미와 의도)을 유지하도록 한국판 척도 초안을 구성하였다. 교육전문가의 내용 타당도 검토, 초등학생의 안면 타당도 검토 후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333명의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에게 수집한 응답을 분석하여 통계적 검증을 수행하여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3요인 11문항의 한국판 학교 상황에서의 학습된 무기력 척도는 초등학생의 학습된 무기력을 타당하고 신뢰롭게 측정하는 자기보고식 척도로 향후 사회과학 분야에서 관련 연구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

* 이 논문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2024년도 '미래지향 정책연구'의 일부인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활용한 학교 상황에서의 학습된 무기력 유형화 및 영향요인 차이 분석'을 수정 및 보완한 것임.

** 불정초등학교 교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원, 교신저자, bjy@nypi.re.kr

투 고 일 / 2025. 3. 10.
심 사 일 / 2025. 5. 2.
심사완료일 / 2025. 5. 9.

Ⅰ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Cizkowicz(2021)가 개발한 학교 상황에서의 학습된 무기력 척도-축약형(School helplessness scale-short)를 한국판으로 변안 및 타당화하는 것이다. 연구 목적에 따라 원저자의 허가를 받은 후 전문번역가 2인의 영한 번역과 이중언어자 2인의 역번안 과정을 거쳐 연구진이 1차 한국판 학습된 무기력 척도 초안을 확정하였다. 전문가 5인의 내용타당도 및 초등학생 10인의 안면타당도 검증 후 확정된 설문지를 IRB 심의에서 승인받았다. 2024년 9월 2일부터 9월 30일까지 초등학교 교사 국내 초등학교 5~6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고 333명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척도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결과 첫째, 3요인(인지적 결손, 정서적 결손, 동기적 결손) 11문항으로 구성된 한국판 학교 상황에서의 학습된 무기력 척도의 구성타당도가 적합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3요인 모형의 적합도 지수가 기준치를 충족하였으며 모든 문항의 표준화 요인부하량이 .5 이상이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둘째, 한국판 학교 상황에서의 학습된 무기력 척도의 준거타당도를 확인하였다. 변안 척도와 기존 학습된 무기력, 관련 변인인 자아효능감, 교사지지 및 진로포부와의 상관분석 결과 모든 상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셋째, 한국판 학교 상황에서의 학습된 무기력 척도의 하위요인 및 전체 척도의 신뢰도는 우수하였다. 문항-총점 간 상관계수는 .552~.646으로 모든 문항이 척도와 양호한 일관성을 보였으며, 하위요인별 문항-문항 간 상관계수가 모두 .3 이상 .8 미만으로 나타나 일관성이 적절하면서 문항 내용 간 중복의 영향에서 자유로웠다. 이 연구를 통해 추후 초등학생의 학교 상황에서의 학습된 무기력을 타당하고 신뢰롭게 측정하여, 정확한 한국 초등학생의 학습된 무기력 현황과 특성을 파악하여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변인 간의 관계를 연구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학습된 무기력, 척도 변안 및 타당화, 초등학생

I. 서 론

초등학생이라고 하면 마냥 생기발랄하고 미래에 대한 큰 꿈에 부풀어있을 것 같지만, 코로나19가 활취고 간 학교 현장에서는 인지적이나 신체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도 수업에 필요한 교과서나 준비물을 챙기지 않고 평가에도 시큰둥하며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다(신혜숙, 민병철, 2024; 유지영, 김춘경, 2014). 2022년 초·중·고등학교 교사 68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학급 내 정서행동 위기학생이 '있다(87.1%)'는 응답이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그 중 '무기력(49.7%)'한 유형이 절반을 차지한다는 응답 결과는 현상의 심각성을 보여준다(서울특별시교육청, 2024).

학습된 무기력은 개인의 회복탄력성을 초과하는 실패를 경험했을 때 스스로 자신에게 일어나는 상황을 통제하거나 부정적인 결과를 바꾸는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왜곡된 믿음을 형성하고 변화를 시도하려는 모든 노력을 중단한 채 자포자기에 빠진 상태를 의미한다(이명진, 봉미미, 2013; Seligman, 1975). 학습된 무기력은 학습부진, 학교 중퇴, 우울, 자살 등 심각한 부적응을 예측하는 강력한 요인이며, 학업 상황 뿐만 아니라 인생 전반에 영향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건강한 성장을 방해한다(신기명, 1990; Quinless & Nelson, 1988).

특히, 초등학생 시기는 학습된 무기력을 예방 및 완화에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학습된 무기력은 주로 아동 중·후기에 발달하기 시작한다(이명진, 봉미미, 2013). 학습된 무기력 상태의 아동은 낮은 자존감과 동기로 인해 과업을 마주했을 때 쉽게 좌절하거나 포기하고, 심지어 타인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도 어려워하기 때문에 연령이 증가할수록 왜곡된 신념을 강화하는 실패를 반복적으로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이영선, 1997; Cizkiewicz, 2021). 학습된 무기력을 무시하거나 잘못된 대처를 하며 반복된 실패를 경험하면, 상황에 대한 통제감이나 영향력에 대한 왜곡된 믿음 및 부정적인 자아개념과 정서가 고착화되어 극복하기 매우 어려워진다(이명진, 봉미미, 2013; Luse & Burkman, 2022). 이에, 이제 막 학습된 무기력을 형성하기 시작하여 관련한 경험이 많지 않은 저연령대가 교육적 개입을 위한 최적의 타이밍이며, 적극적인 조기 개입을 통해 학습된 무기력을 효과적으로 예방 및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초등학생의 학습된 무기력 예방 및 완화를 위한 교육적 개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학습된 무기력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선행연구의 학습된 무기력 측정 도구는 초등학생의 학습된 무기력 현상을 파악하는데 다소 한계가 있다. 구체적으로, 학습된 무기력을 학술적으로 개념화하고 체계적인 도구 개발 절차를 거쳐 개발한 측정 도구를 활용하기 보다는 귀인 성향이나 정서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의 일부를 활용하거나

(Crandall, Katkovsky & Crandall, 1965; Zuckerman & Lubin, 1965), 임상병리의 관점에서 처방적인 개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발하였거나(Quinless & Nelson, 1988), 초등학생 수준에서 문항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기 어렵거나(김준경, 2011; 신기명, 1990), 초등학생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맥락과 상이한 문항을 구성한 경우(Luse & Burkman, 2022), 학교 생활 전반이 아닌 학업과 관련한 무기력만을 측정하는(박병기, 노시언, 김진아, 황진숙, 2015) 한계가 있었다. 한편, Ciżkowicz(2021)가 학교 상황에서의 학습된 무기력 척도(School helplessness scale)의 문항을 최신화하고 통계적 재검증을 통해 개발하고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타당화한 축약형 학교 상황에서의 학습된 무기력(School helplessness scale-Short) 척도는 국내 초등학생이 학교 맥락에서 경험하는 학습된 무기력 연구에 적용하기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 척도는 폴란드에서 개발된 척도이기 때문에 국내 맥락에 맞게 변안 및 타당화가 필요하다.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다음 두 가지의 연구문제를 상정하였다.

첫째, 한국판 학교 상황에서의 학습된 무기력 척도의 타당도는 어떠한가?

둘째, 한국판 학교 상황에서의 학습된 무기력 척도의 신뢰도는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학습된 무기력의 개념과 특성 및 관련 변인

학습된 무기력은 Seligman(1975)에 의해 정의된 개념으로, 개인이 반복적인 부정적인 경험을 통해 ‘어떤 시도나 노력을 해도 결과를 바꿀 수 없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 현상은 수행 중 포기하거나 인내심을 잃고 과제를 완수하지 못하는 등의 행동을 설명하며, 개인이 성공적인 결과를 예측하지 못하고 지속적인 실패에 빠지게 만든다(김준경, 2011). 학습된 무기력은 특히 실패를 반복한 후, 개인의 회복탄력성을 초과하는 좌절을 경험하게 될 때 악화되며(신기명, 1990; 이영선, 1997), 이는 이후 새로운 상황에서도 실패를 예상하고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 않게 만든다(차경희, 2022). 학습된 무기력은 우울, 외로움, 수치심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켜, 개인이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필요한 과제에 집중하지 못하게 한다(김준경, 2011; 박병기 외, 2015).

특히 아동기는 학습된 무기력의 예방 및 완화에 중요한 시기이다. 학습된 무기력은 아동 중·후기부터 반복된 실패를 경험하면서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며, 상황을 변화시

킬 수 없다는 좌절감을 경험하면서 형성되기 시작한다(이명진, 봉미미, 2013). 학습된 무기력에 빠진 아동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거나 낮은 자존감, 낮은 동기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감정은 점차적으로 학습된 무기력한 상태를 심화시켜, 결국 도전 의욕을 상실하고 학업 성취도가 낮아질 수 있다(차경희, 2022). 아동기의 발달적 특성상 학습된 무기력이 청소년기와 성인기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저연령대에서의 예방적 개입이 중요하다(유지영, 김춘경, 2014; 이영선, 1997).

학습된 무기력에 관련 변인은 개인적 차원과 환경적 차원으로 나눌 수 있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주로 자기효능감이 중요한 보호 요인으로 작용한다. Bandura(1986)의 사회학습이론에 따르면,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특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신념과 기대감을 의미한다. 이 신념이 긍정적일수록 학습된 무기력의 발생 가능성은 낮아지며, 반대로 낮은 자기효능감은 무기력의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유지영, 김춘경, 2014). 그 외에도 아동의 미래 계획이나 진로포부 역시 학습된 무기력과 관련이 있으며,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다는 믿음이 학습된 무기력의 해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황매향 외, 2018). 환경적 차원에서는 부모와 교사와의 상호작용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아동은 자신의 능력과 성취를 외부 평가를 통해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이영선, 1997). 특히 초등학생은 부모와 교사의 피드백과 기대를 통해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인식을 형성한다(Bandura, 1986). 부모의 영향은 학습된 무기력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아동이 어려움을 겪을 때 지지적 태도나 과도한 기대는 학습된 무기력을 예방하거나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Sasikala & Karunanidhi, 2011). 또한, 교사와의 친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심리적 지원을 경험하는 것은 학생들이 무기력을 느끼는 정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황매향 외, 2018; 조은혜, 이영광, 2022). 한편, 학습된 무기력은 학습된 무기력은 개인이 실패를 반복적으로 경험하여 자신의 노력으로 미래를 변화시킬 수 없다고 인식이라는 점에서, 개인의 인식이나 신념에 기인한 개념이기 때문에 환경적 차원보다 개인적 차원에 포함되는 변인과 더 높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정문주, 양현숙, 채은영, 김선희, 2015).

2. 학습된 무기력의 측정

국외 선행연구에서 활용된 학습된 무기력 관련 주요 척도를 종합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별도의 측정도구가 개발되기 전에는 학습된 무기력을 측정하기 위해 귀인 이론과 관련한 통제소재에 대한 인식 또는 정서 측정도구가 활용되었다(김준경, 2011). 먼저 통제소재와 관련된 척도는 Crandall et al.(1965)의 Intellectual Achievement Responsibility (IAR) Scale이 있

다. 이 척도는 아동의 학습된 무기력을 측정하기 위해 널리 사용되었으며, 34문항으로 구성된 성공 혹은 실패 상황에서 노력과 능력 중 어디에 귀인하는지 강제로 선택하게 한다. 24문항은 성공 상황에, 10문항은 실패 상황에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IAR의 하위 척도는 연구 목적 및 대상의 특성에 따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사용하도록 개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척도의 신뢰도 증거가 부족하다.

다음으로 정서 척도로는 Zuckerman과 Lubin(1965)의 Multiple Affect Adjective Check List(MAACL)가 있다. 오늘의 기분과 관련된 상태와 일반적인 기분과 관련된 특성으로 구분하여 정서적인 특성을 우울, 불안, 적개심, 긍정적 정서, 감각추구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이 중 학습된 무기력 관련 연구에서는 우울, 불안, 적개심 척도가 활용되었다(김준경, 2011). 이 척도는 132개의 형용사를 통해 자신의 상태와 특성에 대해 자기보고식으로 응답한다. 일반 청소년, 일반 성인,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 정신건강센터에 입소한 환자 등 다양한 표본에게 적용한 결과 척도의 신뢰도는 각 하위요인별 .70 이상으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이 척도는 2000년대 초반까지 약 40여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통계적인 검증과 시대의 변화에 따라 개정해왔다는데 의의가 있으나, 임상 상황에 적용하기 위해 개발된 척도로 처방보다 예방적 개입이 필요한 교육 현장에 적용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

이후 학습된 무기력 이론이 정교화되면서 Quinless와 Nelson(1988)은 우울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와 학습된 무기력을 별개의 개념으로 설정하며 이를 측정하기 위한 Learned Helplessness Scale(LHS)를 개발하였다. 이 척도는 응답 편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긍정문 10문항과 부정문 10문항 총 20문항으로 구성되며, 4개의 하위요인은 각각 내적/외적 6문항, 일반적/구체적 5문항, 안정적/비안정적 6문항, 개인 능력 신념 3문항으로 측정된다. 응답 범주는 1: 매우 그렇다 ~ 4: 전혀 그렇지 않다 4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한다. 총점이 높을수록 학습된 무기력의 수준이 높다. 건강한 성인 표본 241명을 대상으로 도구를 적용한 결과 신뢰도는 .85로 양호하게 나타났으며, 우울, 부정적인 정서, 단순 무기력과 판별타당도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척도는 최근까지 다양한 문화권에서 변안 및 타당화되었으며 임상 연구에서 활발하게 활용되었으나, 병리학적 관점을 기반으로 개발되었다는 한계가 있다.

한편, 정신의학이나 간호학 분야 등 임상병리와 관련된 분야 외에도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학생과 성인들을 대상으로 학습된 무기력에 대한 예방적 개입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사회과학 분야에서도 학습된 무기력 측정 척도가 개발되었다. 먼저 교육학 분야에서, Ciżkowicz(2021)는 Seligman(1975)의 학습된 무기력 모델을 바탕으로 School Learned Helplessness Scale을 개발하고, 해당 척도에 대한 통계적인 검증을 통해 School Learned Helplessness Scale - Short form(SBS-S)을 구성하였다. 이 척도는 인지적 결손, 감정적 결손, 동기적

결론 3가지 하위요인을 측정하는 각 5개 문항으로 총 15문항으로 구성된다. 응답범주는 1: 전혀 그렇지 않다 ~ 5: 항상 그렇다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한다. 폴란드의 초·중등학생 1,170명과 고등학생 1,228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수행한 결과 척도의 내적 신뢰도 계수는 하위요인별로 .81~.89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이 척도는 학교 상황에서의 학습된 무기력을 측정할 수 있으며 문항이 간결하여 초등학생이 이해하고 응답하기에 용이하지만, 한국에서는 아직 활용된 바가 없어 국내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에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맥락을 반영한 번안 및 타당화가 요구된다.

다음으로 경영학 및 사회과학 분야의 적용을 위해 Luse와 Burkman(2022)는 귀인이론을 바탕으로 Learned helplessness attributional scale(LHAS)를 개발하였다. 이 척도는 귀인이론에서 제시한 귀인 유형을 기반으로, 하위요인을 일반적/구체적, 안정적/불안정적, 내적/외적 3가지로 보았다. 문항 구성은 컴퓨터가 고장난 상황에서 문제에 대처할 때 어려움을 겪는 이유에 대해 각 귀인 유형에 해당하는 5개의 설명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동의 정도를 응답하도록 하였다. 응답 범주는 1: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5: 매우 동의한다는 5점 척도로 응답한다. 대학생 256명을 대상으로 적용한 결과 척도 전체의 신뢰도는 .79 이상으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이 척도는 귀인이론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사고과정을 일상적인 용어로 설명하고 이에 대한 동의 정도를 측정하였다는 특징이 있으나, 주어진 상황이 국내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경험 맥락에 적합하지 않고 보기로 주어진 문항이 이들의 인지 수준에는 이해가 어렵다.

표 1
국외 주요 학습된 무기력 측정 척도 종합

연구자 및 척도명	대상	문항 수/척도	하위요인	신뢰도
Crandall et al. (1965) IAR	아동	34문항 / 노력 성공 귀인	• 성공 상황 • 실패 상황	-
Zuckerman & Lubin(1965) MAACL	건강한 또는 병리적 청소년, 성인	132문항 / 상태와 특성	• 우울 • 불안 • 적개심	하위요인 .70 이상
Quinless & Nelson(1988) LHS	건강한 또는 병리적 성인	20문항 / 4점 Likert	• 내적/외적 • 안정적/불안정적	.85
Ciżkowicz(2021) SBS-S	초·중·고등 학생	15문항 / 5점 Likert	• 인지적 결손 • 감정적 결손	하위요인 .79~.86
Luse & Burkman(2022) LHAS	대학생	15문항 / 5점 Likert	• 내적/외적 • 안정적/불안정적	.79

국내 선행연구에서 활용된 학습된 무기력 관련 주요 척도를 종합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먼저 신기명(1990)의 척도는 국내 고등학생의 학습된 무기력 진단 척도를 개발하였다. 문항은 자신감 결여 17문항, 우울 및 부정적 인지 10문항, 수동성 6문항, 통제력 결여 4문항, 지속성 결여 3문항, 과시욕 결여 3문항, 책임성 결여 2문항으로 7개 하위요인을 측정하는 총 4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응답은 1: 전혀 그렇지 않다 ~ 4: 매우 그렇다의 4점 Likert 척도로 응답한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적용한 결과 척도의 신뢰도는 .776으로 양호하였다. 이영선(1997)은 신기명(1990)의 척도를 초등학생용으로 수정하여, 34문항의 척도로 재구성하였고 해당 척도의 신뢰도는 .85로 적절하였다. 한편 해당 척도는 학습된 무기력의 학술적인 개념 고찰 및 이론을 종합하여 개발하였다고 보다는, 다양한 유관척도 및 변인을 종합하여 구성하였고 이에 전반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요인구조와 불균형한 문항 수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신기명(1990)의 학습된 무기력 척도는 대상에 따라 일부 수정을 통해 국내 연구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박병기 외, 2015).

한편, 학생들이 무기력함을 느끼는 주요 영역은 학습과 관련된 상황임에 착안하여 학업 관련 상황에서의 학습된 무기력을 측정하고자 개발한 척도가 있다. 먼저 김준경(2011)은 서울, 경기 지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습 상황에서의 학습된 무기력 척도를 개발하였다. 인간의 학습된 무기력 구조론(Mikulincer, 1994)에 기반하여 학습된 무기력의 하위요인을 회피 전략, 재구성전략, 상태반추, 과제외적 반추 4가지로 구성하였다. 문항 구성은 회피전략 5문항, 재구성전략 5문항, 상태반추 6문항, 과제외적 반추 5문항 총 21문항이며, 1: 전혀 아니다 ~ 6: 매우 그렇다 6점 Likert 척도로 응답한다. 서울, 경기지역 고등학생 47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본검사에서 영역별 신뢰도는 .70~.82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박병기 외(2015)는 기존 학습된 무기력 측정 척도가 영역 일반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 학업 상황에 특수한 학습된 무기력을 측정하기 위해 학업 무기력 척도를 개발하였다. 학업무기력은 학업과 관련된 상황에서 학습된 무기력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기제와 교육환경과 관련된 특성을 결합하여 무기력 행동 및 심리적 특성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통제신념 결여, 학습동기 결여, 긍정정서 결여, 능동수행 결여로 4가지 하위요인을 설정하였다. 측정도구는 4개의 하위요인을 측정하는 4개의 문항으로 총 1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내 초, 중, 고 학생 593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해당 척도의 신뢰도는 하위요인별로 .78 ~ .92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응답은 1: 확실히 아니다 ~ 6: 확실히 그렇다 6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한다. 이 척도는 학업 상황에서의 무기력 척도는 국내 학령기 학생의 맥락을 반영하였고 이론적, 통계적 검증이 엄격하게 이루어졌다는 의의가 있으나 학업 상황에만 초점을 맞추어 학교 상황에서의 학습된 무기력을 측정하는데에는 포괄 범주의 한계가 있다.

표 2

국내 주요 학습된 무기력 측정 척도 종합

연구자 및 척도명	대상	문항 수/척도	하위요인	신뢰도
신기명(1990)의 학습된 무기력 척도	국내 고등학생	45문항 / 4점 Likert	- 자신감 결여 - 수동성 - 지속성 결여 - 책임성 결여 - 우울-부정적인지 - 통제력 결여 - 과시욕 결여	.776
김준경(2011)의 학습된 무기력 척도	서울, 경기 고등학생	21문항 / 6점 Likert	- 회피전략 - 상태반추 - 재구성전략 - 과제외적 반추	하위요인 .70~.82
박병기 외(2015)의 학업 무기력 척도	국내 초·중·고등학생	16문항 / 6점 Likert	- 통제신념 결여 - 학습동기 결여 - 긍정정서 결여 - 능동수행 결여	하위요인 .78 ~ .92

종합하면, 초등학생의 학습된 무기력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교육학적 개입을 설계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대상, 분야, 범주에 적합하고 엄격한 개발 과정을 거친 척도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Ciżkowicz(2021)의 학교 상황에서의 무기력 척도는 학습된 무기력의 개념을 처음 제시한 Seligman(1975)의 학습된 무기력 모델을 바탕으로 구성요소별 측정 문항을 구성하였으며, 초등학생을 포함한 학령기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학 분야에서 적용되어 왔다. 또한 학업에 관한 것뿐 아니라 학생의 학교 생활 전반에 걸친 학습된 무기력을 측정하여 수업 및 생활지도 현장에서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의 모집단은 한국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이다. 목표 표본 수를 결정하기 위해 연구의 목적과 분석 방법에 요구되는 표본 수에 대한 논의를 종합하였다. 세부적으로 Pedhazur(1997)는 척도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응답자와 문항 간 비율을 10:1로 할 것을 권고하였다. Osborne과 Costello(2004)는 표본 수에 따른 통계 수치의 변화를 검토하여, 표본 수가 300명 이상일 경우 척도의 변안 및 타당화 결과가 양호하다고 밝혔다. 이 연구에서 변안하고자 하는 학교 무기력 척도의 문항은 총 15개로 150명 이상~300명 이상의 표본 크기가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상치 및 결측치, 불성실 응답으로 인한 데이터 유효율을 고려하여 목표 표본 수를 340명으로 결정하였다.

2. 조사도구

학교 상황에서의 학습된 무기력 척도는 원저자에게 이메일로 한국판 척도의 번안 및 타당화 연 허가를 받았다(허가일: 2024년 8월 11일). 1차로 2명의 전문번역가가 영어에서 한국어로 번역한 후 연구진의 검토를 통해 한국형 학교 상황에서의 학습된 무기력 척도 초안을 도출하였다. 번안한 질문지를 이중언어에 능통한 교육학 전공 박사과정생 2명이 다시 역번안 하여 의미가 상통하는지 검토하고, 내용상 어색한 표현과 문장을 수정하였다. 또한 초등학교 교사 3명, 교육학 박사학위 소지자 2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검토하도록 하여 내용타당도를 확보하였다.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이 질문지에 응답하기에 어렵거나 곤란한 내용은 없는지 초등학교 5~6학년 학생 10명의 검토를 통해 안면타당도를 확인하였다.

학교 상황에서의 학습된 무기력 척도의 준거타당도 확인을 위해 선행연구에서 타당도와 신뢰도가 확보된 척도를 활용하였다.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관련 변인으로 학습된 무기력 척도(이영선, 1997), 자기효능감 척도(송윤아, 2010), 부모기대 척도 중 학업적 기대와 직업적 기대(Sasikala & Karunanidhi, 2011), 교사지지 척도(Metheny et al., 2008), 진로포부 척도(김동현, 김형균, 2022)를 선정하여 조사도구를 구성하였다.

첫째, 학교 상황에서의 학습된 무기력 척도는 Cizkiewicz(2021)이 개발하고 타당화한 축약판 학교 무기력 척도(School learned helplessness scale- short)를 번안하여 활용하였다. 학교 무기력 척도는 인지적 결손, 정서적 결손, 동기적 결손 3가지 하위요인을 측정하는 각 5개 문항 총 15문항으로 구성된다. 응답범주는 1: 전혀 그렇지 않다 ~ 5: 항상 그렇다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각 하위요인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Cizkiewicz(2021)의 연구에서 학교 무기력 척도의 전체 신뢰도는 .88로 보고되었으며, 폴란드 수업 상황에서 인지적 결손(.83), 정서적 결손(.81), 동기적 결손(.83)로 나타나 사회과학에서 수용할 수 있는 신뢰도로 보는 .7 이상 기준을 충족하였다.

둘째, 학습된 무기력 척도는 신기명(1990)이 개발하고 이영선(1997)이 초등학생용으로 수정 보완한 척도를 활용하였다. 초등학생용 학습된 무기력 척도는 자신감 결여 7문항, 우울 및 부정 인지 7문항, 수동성 5문항, 통제력 결여 4문항, 지속성 결여 4문항, 과시욕 결여 4문항, 책임성 결여 3문항 7개의 하위요인을 측정하는 총 34개의 문항으로 구성된다. 응답범주는 1: 전혀 그렇지 않다 ~ 4: 항상 그렇다 4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한다. 척도의 신뢰도는 .85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셋째, 자기효능감 척도는 송윤아(2010)의 척도를 중학생을 대상으로 수정 보완한 김유리(2021)의 척도를 활용하였다. 자기효능감 척도는 단일 구인 1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응답

범주는 1: 전혀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 5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한다. 중학생의 대상으로 한 김유리(2021)의 연구에서 자기효능감 척도의 신뢰도는 .92로 높게 나타났다.

넷째, 부모기대 척도는 학령기 학생을 대상으로 한 부모기대는 학업에 대한 기대와 직업에 대한 기대가 두드러진다는 점에 착안하여 Sasikala와 Karunanidhi(2011)의 학업적 기대와 직업적 기대 문항을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수준과 맥락에 맞게 수정 및 번안하여 활용하였다. 이 척도는 학업적 기대 8문항, 직업적 기대 5문항 총 13문항으로 구성되며 응답 범주는 1: 전혀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 5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한다. Sasikala와 Karunanidhi(2011)의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는 .90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교사지지 척도는 Metheny, McWhirter and O'Neil(2008)이 공립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개발 및 타당화한 교사지지 척도를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수준과 맥락에 맞게 수정 및 번안하여 활용하였다. 이 척도는 투자 8문항, 따뜻한 관심 5문항, 기대 5문항, 접근가능성 3문항 4개의 하위요인을 측정하는 총 21개의 문항으로 구성된다. 응답 범주는 1: 전혀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 5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한다. 미국 공립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Metheny et al.(2008)의 연구에서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투자(.96), 따뜻한 관심(.92), 기대(.89), 접근가능성(.88)으로 양호하게 나타났고 척도 전체의 신뢰도는 .85로 양호하였다.

여섯째, 진로포부 척도는 Gregor와 O'Brien(2016)의 진로포부척도를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번안 및 타당화한 김동현과 김형균(2022)의 척도를 활용하였다. 이 척도는 성취적 진로포부 7문항, 직업적 진로포부 5문항, 교육적 진로포부 4문항 3개의 하위요인을 측정하는 총 15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응답범주는 1: 전혀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 5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한다. 김동현과 김형균(2022)의 연구에서 진로포부 척도의 신뢰도는 .79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일곱째,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파악을 위해 성별, 학년, 학교 소재지 3문항을 구성하였다. 성별은 1: 남자, 2: 여자로, 학년은 1: 5학년, 2: 6학년으로, 학교 소재지는 1: 수도권, 2: 비수도권으로 응답한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연구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바탕으로 개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학교 소재지를 광역 권역으로만 수집하였다.

3. 자료수집

이 연구에서는 조사에 활용할 도구를 확정된 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고 이에 대해 승인(승인번호:202408-HR-연개금-002, 통보일: 2024년 9월 2일)을 받았다. 연구윤리 준수를 위해 서면 동의서를 제출하여 연구 참여 의사를 명확히 밝힌

대상에게만 온라인 설문조사 링크를 배포하였다.

우리나라 초등학교 고학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활용한 표집 방법은 다음과 같다. 지역(수도권, 비수도권)을 고려하여 5:5의 비율로 배분하였으며, 각 초등학교에 자료를 수집하는 데 협력할 담임 교사 섭외가 가능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하는 초등학교에 온라인 설문조사를 요청하였다. 온라인 설문조사는 2024년 9월 2일부터 9월 30일까지 4주간 익명으로 진행되었고, 응답자 및 협조 교사에게 소정의 기프티콘을 보상으로 제공하였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초등학생의 응답 자료 중, 불성실한 응답과 이상치, 결측치가 있는 자료를 제외하였다. 최종 분석에 활용한 333명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 표 3과 같다. 학교 소재지에 따라 수도권 186명(55.9%), 비수도권 147명(44.1%), 성별에 따라 남학생 153명(45.9%), 여학생 180명(54.1%), 학년에 따라 5학년은 158명(47.4%), 6학년은 175명(52.6%) 이다.

표 3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명, %)

구분	남학생	여학생	계
수도권			186(55.9)
5학년	43(12.9)	47(14.1)	90(27.0)
6학년	48(14.4)	48(14.4)	96(28.8)
비수도권			147(44.1)
5학년	28(8.4)	40(12.0)	68(20.4)
6학년	34(10.2)	45(13.5)	79(23.7)

주) 괄호 안은 전체 N=333에 대한 비율임.

4. 자료분석

이 연구에서는 기술통계 분석, 상관관계 분석, 신뢰도 분석을 위해 SPSS Statistics 26.0을, 확인적 요인분석을 위해 R 4.4.1의 lavan 패키지를 활용하여 활용하였다. 먼저, 기술통계를 통해 데이터의 정규성을 확인하였다. Kline(2023)의 제안에 따라 각 변수의 분포 특성을 살펴 보았을 때 왜도 |3| 미만, 첨도 |10| 미만이면 단변량 정규성을 충족한 것으로 보았다. 다음으로, 번안된 척도의 요인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모형 적합도 지수와 문항별 표준화 요인부하량을 확인하였다. 구인타당도를 판단하기 위한 모형 적합도 지수는 CFI, TLI, RESEA, SRMR을 활용하였다(Kline, 2023). 모형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해 Kline(2023)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CFI와 TLI가 .90 이상인지, RESEA는 .10 이하인지, SRMR은 .10 이하인지 확인하였다. 또한, 문항별 표준화 요인부하량의 추정치가 0.5 이상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확인하였다(문수백, 2021). 마지막으로, 준거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척도의 신뢰도는 Nunnally(1978)의 기준에 따라 내적 일치도 계수가 .5 이상은 최소한의 신뢰도, .6은 양호한 신뢰도, .7은 괜찮은 신뢰도로 판단하였다.

IV. 연구 결과

1. 기술통계 분석

한국판 학교 상황에서의 학습된 무기력 및 관련 변인들의 기초통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4 참조). 학교 상황에서의 학습된 무기력은 보통보다 낮은 수준(평균 2.49점)이었고, 하위요인별로 인지적 결손(2.52점), 정서적 결손(2.49점), 동기적 결손(2.47점) 순이었다. 관련 변인의 평균을 살펴보면 학습된 무기력은 보통보다 낮았고(2.42점), 부모기대(3.60점), 자기효능감(3.55점), 교사지지(3.95점), 진로포부(3.71점)은 보통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왜도와 첨도의 절댓값을 기준으로 변인의 정규성을 검정한 결과 확인한 결과, 모든 변인의 왜도는 -0.67~0.64, 첨도는 -.51~.92로 이 연구에서 활용한 모든 변인의 분포에는 이상이 없고 단변량 정규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신뢰도 분석 결과, 부모기대 척도의 내적 일치도 계수가 값이 사회과학 분야에서의 최소한의 신뢰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그 외 모든 변수의 신뢰도 수준은 적절하였다.

표 4
기술통계분석 결과

구분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신뢰도
학교 상황에서의 학습된 무기력	2.49	.65	.01	-.28	.83
인지적 결손	2.52	.79	.20	.30	.86
정서적 결손	2.49	.96	.29	-.51	.80
동기적 결손	2.47	.86	.45	.06	.81
학습된 무기력	2.42	.90	.43	-.41	.97
부모기대	3.60	.41	.64	.49	.46
자기효능감	3.55	.85	-.30	.15	.94
교사지지	3.95	.65	-.54	.34	.95
진로포부	3.71	.71	-.67	.92	.68

주) 최소한의 신뢰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분석에서 제외한 변수는 음영 및 기울임 처리함.

2. 한국판 학교 상황에서의 학습된 무기력 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

1) 15문항 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 분석

15문항으로 구성된 한국판 학교 상황에서의 학습된 무기력 척도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일부 모형 적합도 지수가 적절하지 않았다. 세부적으로, χ^2 검정값($\chi^2=244.921$, $df=87$, $p < .001$)이 유의하였으며 TLI가 .89로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 그 외 CFI .916, RESEA .074, SRMR 0.73은 기준치를 충족하였다(Kline, 2023). 일부 문항의 표준화 요인부하량이 .5 미만으로 나타나, 전반적인 문항-총점 간 상관, 문항-문항 간 상관, 문항 삭제 시 신뢰도 변화를 검토하였다(표 5 참조, 그림 1 참조).

먼저 문항-총점 간 상관분석 결과 대부분의 문항이 .5 이상으로 척도 전체와의 일관성이 양호하였다. 그러나 인지적 결손의 1번 문항(.200), 정서적 결손의 1번 문항(.306), 동기적 결손의 4번 문항(.318)과 총점 간 상관이 .4 미만으로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DeVellis, 2016)으로 나타나 한국판 학교 상황에서의 학습된 무기력 척도의 타당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3개 하위요인별로 문항-문항 간 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 각 요인의 문항 간 상관계수는 대체로 .3 ~ .7 사이에 분포하여 적절한 수준(DeVellis, 2016)이었다. 한편, 인지적 결손 1번 문항은 같은 하위요인에 구성된 2번, 4번 문항과 상관관계가 .3 미만이었고, 3번, 5번 문항과도 상관계수가 다소 낮았다. 정서적 결손 5번 문항은 같은 하위요인에 구성된 1번 문항과 상관관계가 .3 미만이었고, 2~5번 문항과의 상관계수가 다소 낮았다. 동기적 결손 4번 문항은 같은 하위요인에 구성된 1번, 3번 문항과 상관관계가 .3 미만이었고, 2번, 4번 문항과의 상관계수가 다소 낮았다.

마지막으로 문항 삭제 시 신뢰도를 검토하였다. 전체 척도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인지적 결손의 1번 문항과 정서적 결손의 1번 문항은 문항 삭제 시 척도의 신뢰도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별로 검토하였을 때, 인지적 결손은 5문항의 Cronbach's α 는 .837이고, 1번을 삭제하였을 때 .860으로 개선되었다. 정서적 결손은 5문항의 Cronbach's α 는 .798이고, 1번만 삭제하였을 때 .796으로 악화되었으며 5번만 삭제하였을 때 .804로 개선되었다. 1번과 5번 문항을 모두 삭제하였을 때 3문항으로 구성된 정서적 결손은 .823으로 가장 높은 내적 일관성 계수를 확인하였다. 동기적 결손은 5문항의 Cronbach's α 는 .837에서, 4번 문항을 삭제하였을 때 .801로 악화되었다. 상기 논의를 종합하여 인지적 결손의 1번 문항, 정서적 결손의 1번과 5번 문항, 동기적 결손 4번 문항 4문항을 삭제하였다.

표 5

한국판 학습된 무기력 척도의 문항 검토 결과

번호	문항	표준화 요인부하량	문항-총점 상관	삭제 시 척도의 신뢰도
수업시간에 나는 ~				
요인 1. 인지적 결손				
1R	나는 알아서 공부한다	.394	.200**	.842(+)
2R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있다.	.779	.485**	.827(-)
3R	선생님의 설명을 이해한다.	.769	.544**	.824(-)
4R	해야 할 일을 쉽게 해낸다.	.769	.532**	.824(-)
5R	모든 것을 이해한다.	.800	.478**	.827(-)
요인 2. 정서적 결손				
6	나는 무엇인가 이해하지 못할 때 부끄럽다.	.477	.306**	.838(+)
7	질문을 받을까봐 두렵다.	.806	.535**	.823(-)
8	내가 바보처럼 보일까봐 걱정된다.	.709	.438**	.830(-)
9	남들 앞에서 말하는 게 두렵다.	.832	.515**	.825(-)
10	수업 시간에 나는 슬프고 억울하다.	.481	.507**	.826(-)
요인 3. 동기적 결손				
11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느낀다.	.611	.470**	.827(-)
12	너무 지루하다.	.798	.558**	.822(-)
13	수업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게 힘들다.	.774	.561**	.821(-)
14R	수업 시간에 나는 배우고 싶은 열정이 있다.	.453	.318**	.836(-)
15	아무 생각없이 빈둥거린다.	.658	.522**	.824(-)

주1) ** $p < .01$

2) 표준화요인부하량이 .5 미만인 문항은 음영 및 기울임 표시하였음.

3) 15문항 척도 전체 Cronbach's $\alpha = .837$

〈인지적 결손〉					〈정서적 결손〉					〈동기적 결손〉							
	C1	C2	C3	C4	C5		E1	E2	E3	E4	E5		M1	M2	M3	M4	M5
C1	1					E1	1					M1	1				
C2	.291	1				E2	.355	1				M2	.472	1			
C3	.338	.602	1			E3	.480	.552	1			M3	.485	.633	1		
C4	.258	.597	.582	1		E4	.354	.702	.574	1		M4	.293	.394	.299	1	
C5	.350	.629	.601	.629	1	E5	.227	.323	.379	.385	1	M5	.399	.514	.497	.314	1

범례:

.3 미만

.3 이상 .5 미만

.5 이상

1

범례: .3 미만 .3 이상 .5 미만 .5 이상 1

주) .3 미만의 상관계수는 기울임 처리하였음.

그림 1. 하위요인별 문항-문항 간 상관관계 히트맵

2) 11문항 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 분석

(1) 구성타당도 분석

최종적으로 선정한 11개 문항으로 구성된 학교 상황에서의 학습된 무기력 척도를 3요인 모형을 기준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다음 그림 2와 같다. χ^2 값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chi^2=71.921$, $df=41$, $p<.001$), 해당 지표는 표본 크기에 민감하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모형 적합도 지수인 CFI, TLI, RMSEA 및 SRMR 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문수백, 2021)하였다. 분석 결과, 3요인 모형은 모형 적합도 기준치를 충족하였다. 세부적으로, CFI .979(.9 이상), TLI .972(.9 이상), RMSEA .048(.05 미만: 매우 좋음), SRMR: .039(.05 미만: 양호)로 나타났다(Kline, 2023). 또한, 모든 문항의 요인부하량이 .5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를 통해 3요인 11문항 모형이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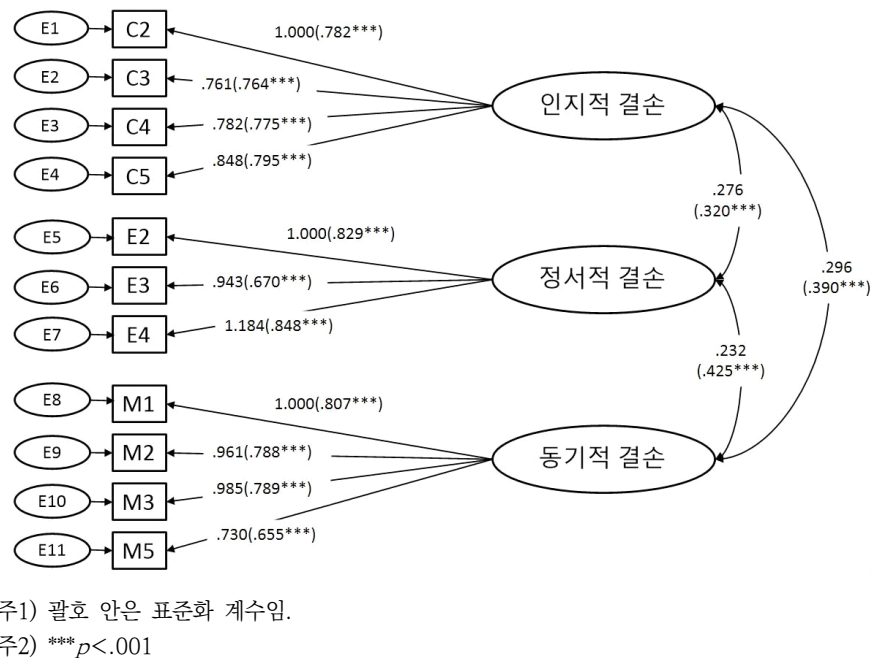


그림 2. 학교 상황에서의 학습된 무기력 척도의 구조모형

각 하위요인별 문항들의 표준화 요인부하량과 문항 수를 바탕으로 AVE와 CR값을 확인한 결과, 모든 하위요인의 AVE값이 .5 이상이고 CR값이 .7 이상으로 나타나 구성타당도와 신뢰도가 확인되었다(Hair et al., 2014). 세부적으로, 인지적 결손의 AVE는 .629, CR은 .871이었고, 정서적 결손의 AVE는 .618, CR은 .828이었다. 동기적 결손의 AVE는 .580, CR은 .846이었다.

(2) 준거타당도 분석

학교 상황에서의 학습된 무기력 척도의 준거타당도 검증을 위해 학습된 무기력, 자아효능감, 교사지지 및 진로포부와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표 6 참조). 초등학생의 학교 상황에서의 학습된 무기력은 학습된 무기력($r = .543, p < .01$)과의 정적 상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한편, 자기효능감($r=-.491$, $p<.01$)과 교사지지($r=-.329$, $p<.01$), 진로포부($r=-.342$, $p<.01$)와의 부적 상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하위요인별로 인지적 결손은 준거타당도 확인을 위한 변인과 $r=-.533\sim.258$, 정서적 결손은 $r=-.278\sim.519$, 동기적 결손은 $r=-.351\sim.404$ 의 상관을 보였다. 각 하위요인은 준거타당도 확인을 위한 다른 변수보다 학교 상황에서의 학습된 무기력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를 통해 한국판 학교 상황에서의 학습된 무기력 척도의 준거타당도를 확인하였다.

표 6

학교 상황에서의 학습된 무기력 및 관련 변인의 상관분석 결과

구분	1	2	3	4	5	6	7	8
1. 학교 상황에서의 학습된 무기력	1							
2. 인지적 결손	.687**	1						
3. 정서적 결손	.751**	.223**	1					
4. 동기적 결손	.779**	.376**	.366**	1				
5. 학습된 무기력	.543**	.258**	.519**	.404**	1			
6. 자기효능감	-.491**	-.533**	-.278**	-.302**	-.428**	1		
7. 교사지지	-.329**	-.295**	-.106**	-.351**	-.226**	.290**	1	
8. 진로포부	-.342**	-.348**	-.187**	-.241**	-.247**	.465**	.185**	1

주) ** $p<.01$

(3) 신뢰도 분석

3요인 11문항으로 구성된 한국판 학교 상황에서의 학습된 무기력 척도의 각 하위요인 및 전체 척도의 내적 일치도 계수를 확인한 결과는 다음 표 7과 같다. 하위요인별로, 인지적 결손 .860, 정서적 결손 .823, 동기적 결손 .801이었으며, 척도 전체의 신뢰도는 .829로 나타나 우수한 신뢰도(Nunnally, 1978)를 보였다.

표 7

한국판 학교 상황에서의 학습된 무기력 척도의 신뢰도

구분	인지적 결손(4문항)	정서적 결손(3문항)	동기적 결손(4문항)	척도 전체(11문항)
내적 일치도 계수	.860	.823	.801	.829

3요인 11문항으로 구성된 한국판 학교 상황에서의 학습된 무기력 척도의 문항-총점 간 상관 및 하위요인별 문항-문항 간 상관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8, 그림 3 참조). 각 문항의 문항-총점 간 상관계수는 .552~.646으로 모든 문항이 척도와 양호한 일관성(DeVellis, 2016)을 보였다.

표 8

한국판 학교 상황에서의 학습된 무기력 척도의 문항-총점 간 상관관계수

	총점	C2	C3	C4	C5	E2	E3	E4	M1	M2	M3
총점	1	.562**	.615**	.605**	.561**	.629**	.552**	.617**	.559**	.641**	.646**

주) ** $p < .01$

인지적 결손 하위요인의 문항-문항 간 상관관계수는 .582~.629였다. 정서적 결손 하위요인의 문항-문항 간 상관관계수는 .552~.702였다. 동기적 결손 하위요인의 문항-문항 간 상관관계는 .399~.633이었다. 하위요인별 문항-문항 간 상관관계수가 모두 .3 이상 .8 미만으로 나타나 일관성이 적절하면서 문항 내용 간 중복의 영향에서 자유로운 것으로 나타났다(DeVellis,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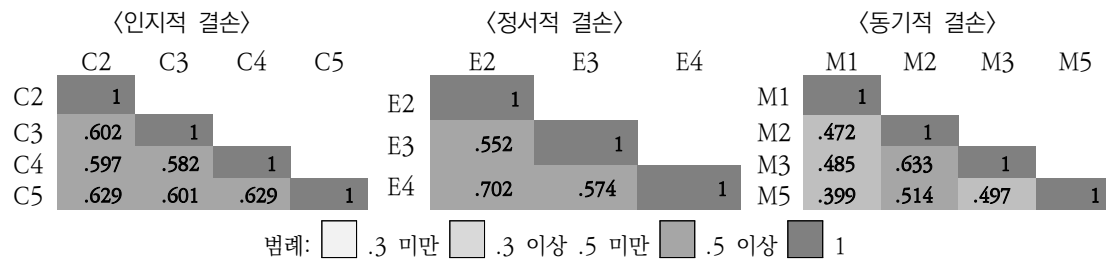


그림 3. 한국판 학교 상황에서의 학습된 무기력 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문항 간 상관관계 히트맵

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Ciżkowicz(2021)가 개발한 학교 상황에서의 학습된 무기력 척도를 한국 초등학교 생에게 적합하게 변안 및 타당화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3요인(인지적 결손, 정서적 결손, 동기적 결손) 11문항으로 구성된 한국판 학교 상황에서의 학습된 무기력 척도의 구성타당도가 적합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문항-총점 간 상관, 문항-문항 간 상관, 신뢰도 변화를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선정한 3요인 11문항 척도의 모형 적합도가 기준치를 충족하였다. 또한, 각 하위요인별 AVE 값이 모두 .5 이상이었 고 CR값이 모두 .7 이상으로 나타나 수렴타당도를 확인하였다. 한국판 학교 상황에서의 무기력 척도의 하위척도는 세부적으로 다음과 같다. 인지적 결손은 학생이 수업 시간에 느끼는 인지적 수월성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며 모두 역문항으로 구성된다. 인지적 결손의 대표 문항으로는 ‘수업시간에 나는 모든 것을 이해한다.’가 있다. 정서적 결손은 학생이 수업 시간에 느끼는 부정적 정서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며, 대표 문항은 ‘수업시간에 나는 남들 앞에서 말하는 게 두렵다.’이다. 동기적 결손은 학생의 학습 동기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며, 대표

문항은 ‘수업시간에 나는 너무 지루하다.’이다. 이러한 결과는 학습된 무기력은 단일 요인이 아니라, 복수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지한다(김준경, 2011; 배정희, 강승호, 2008; 신기명, 1990; Quinless & Nelson, 1988; Ciżkowicz, 2009; Ciżkowicz, 2021; Luse & Burkman, 2022). 또한 연구 결과는 학습된 무기력은 3개의 구분할 수 있는 하위요인으로 구성된다는 원척도의 3요인 구조(Ciżkowicz, 2021)를 지지하였다. 이는 폴란드 학생을 대상으로 인지적 결손, 정서적 결손, 동기적 결손 하위요인이 한국 초등학교 학생의 학습된 무기력을 설명하기 위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한국판 학교 상황에서의 학습된 무기력 척도의 준거타당도를 확인하였다. 상관분석의 결과 한국판 학교 상황에서의 학습된 무기력 척도는 기존의 타당한 학습된 무기력 척도와 의정적 상관 및 자기효능감, 교사지지, 진로포부와의 부적 상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먼저, 한국판 학교 상황에서의 학습된 무기력 척도는 타당도와 신뢰도가 입증된 학습된 무기력 척도(신기명, 1990)와 .5 이상의 강한 상관(Cohen, 1988)을 나타내어 한국판 학교 상황에서의 학습된 무기력 척도가 한국의 문화적 상황에 적용하기에 유효함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학교 상황에서의 학습된 무기력과의 관련성은 자기효능감($r = -.491$), 진로포부($r = -.342$), 교사지지($r = -.329$) 순으로 크게 나타났다. 이는 학습된 무기력은 환경적 요인보다 개인적 요인과 상대적으로 관련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정문주 외, 2015)를 지지한다. 특히 자기효능감과 학습된 무기력의 부적 관련성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자기효능감이 특정한 문제를 자기 능력으로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신념과 기대(Bandura, 1986)인 것과 같이 학습된 무기력이 본질적으로 개인의 인식 및 신념(정문주 외, 2015)임을 의미한다. 또한, 학습된 무기력이 학생이 스스로 설정한 미래 목표 및 성취 수준인 진로포부와도 관련성이 유효하게 나타나, 초등학교 시기의 학습된 무기력이 현재뿐 아니라 향후 학생의 진로개발(황매향 외, 2018)에 잠재적으로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교사지지와 학습된 무기력의 부적 상관관계를 통해 수업과 생활지도를 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가 지지가 초등학교 학생의 학습된 무기력에 대한 보호요인으로 작용하여 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촉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한국판 학교 상황에서의 학습된 무기력 척도의 하위요인 및 전체 척도의 신뢰도는 우수하였다. 전체 척도와 하위요인별 내적 일치도 계수(Cronbach's α)는 모두 .8 이상이었다. 문항-총점 간 상관계수는 .552~.646으로 모든 문항이 척도와 양호한 일관성을 보였으며, 하위요인별 문항-문항 간 상관계수가 모두 .3 이상 .8 미만으로 나타나 일관성이 적절하면서 문항 내용 간 중복의 영향에서 자유로웠다.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의 모집단인 전국 초등학교 학생의 구성비를 반영한 층화비례표집을 통해 표본의 대표성을 높일 필요가 있

다. 이 연구는 학교 상황에서의 학습된 무기력 척도의 변안 및 타당화 과정에서 임의표집을 사용하여 표본의 대표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전국 초등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모집단을 체계적으로 표집하는 방법을 통해, 학습된 무기력 척도를 보다 넓은 범위의 초등학생 집단에 게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고 전국 초등학생의 학습된 무기력 현황 및 집단별 수준 차이를 보다 명확하게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후속 연구에서는 교차타당도와 검사-재검사 신뢰도 확인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교차타당도와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이는 연구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에 제약을 둘 수 있다. 교차타당도 검토는 해당 척도가 다양한 환경과 집단에서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중요한 과정으로(이형권, 2018), 후속 연구에서 검토된다면 연구의 외적 타당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검사-재검사 신뢰도 검토를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동일한 표본을 대상으로 시간적 간격을 두고 재검사를 실시하여 신뢰도를 검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척도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문수백, 2021), 연구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후속 연구들은 이 연구의 결과를 보다 넓은 맥락에서 검토하고 학교 상황에서의 학습된 무기력 척도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셋째, 후속 연구에서는 한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들의 맥락을 반영한 학습된 무기력 항목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학습된 무기력 척도를 직접 개발한 것이 아니라 해외 척도를 국내 상황을 반영하여 변안하고 타당화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한국 초등학생에게 특수하게 나타나는 학습된 무기력을 반영하는 문항을 충분히 포함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교육의 3주체인 초등학생, 초등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수행하여 한국 초등학생의 학습된 무기력 현황에 대해 심층적으로 조사하고 연령과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측정 문항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학습된 무기력의 다양한 측면을 구체적으로 반영한 측정 문항을 설계하여 보다 정밀한 분석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 연구는 학교 상황에서의 학습된 무기력 척도를 한국의 문화적 맥락과 초등학생의 연령 수준에 맞게 변안하고 타당화 작업을 수행하여, 한국 초등학생의 학습된 무기력 현황을 측정할 수 있는 타당하고 신뢰로운 도구를 도입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또한 학습된 무기력과 관련 변인의 상관을 검증하여 잠재적인 영향요인을 밝혔다. 이를 통해 초등학생의 학습된 무기력에 대해 이해하고,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 대한 조기 개입을 통해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경민, 송지은, 조은영 (2020). 한국판 청소년용 민감성 척도 타당화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31(1), 53-75. doi:10.14816/sky.2020.31.1.53
- 김동현, 김형균 (2022). 초등학생의 진로포부와 진로성숙도 간의 관계. *교육논총*, 59(3), 32-57.
- 김유리 (2021). *중학생의 진로개발역량과 부모진로지원행동 및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자기 효능감의 매개효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준경 (2011). *학습된 무기력 척도 개발 및 타당화: 학습상황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문수백 (2021). *비전공자를 위한 통계분석의 원리와 실제*(pp.66-75). 서울: 학지사.
- 박병기, 노시연, 김진아, 황진숙 (2015). 학업무기력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아동교육*, 24(4), 5-29. doi:10.17643/KJCE.2015.24.4.01
- 서울특별시교육청 (2024). *교실 속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방안*. 서울: 서울특별시교육청.
- 송윤아 (2010).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신기명 (1990). 고등학교 학생의 학습무기력에 관한 연구. *전국대학교 논문집*, 29(2), 219-257.
- 신혜숙, 민병철 (2024). 코로나19 전후 중학생의 학업무기력 변화와 영향요인 분석. *한국청소년연구*, 35(1), 85-107. doi:10.14816/sky.2024.35.1.85
- 유지영, 김준경 (2014). 자기효능감과 자아탄력성이 초등학생의 학습된 무기력에 미치는 영향. *정서·행동장애연구*, 30(1), 83-102.
- 이명진, 봉미미 (2013). 청소년기의 학습된 무기력. *교육학연구*, 51(1), 77-105.
- 이영선 (1997). *초등학교 아동의 학습된 무기력과 성패귀인 및 학교생활 적응간의 관계*. 한국 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문주, 양현숙, 채은영, 김선희 (2016). 청소년의 학습된 무기력과 관련요인에 대한 메타분석. *청소년학연구*, 23(5), 31-65. doi:10.21509/KJYS.2016.05.23.5.31
- 차경희 (2022). *10대의 무기력: 무기력한 내 아이 속마음 들여다보기*(pp.19-30). 대전: 도트북.
- 황매향, 조봉환, 인효연, 여태철, 공윤정, 임경희, 배기연, 정애경, 박진영 (2018). *초등학교 진로교육의 실제*(pp.101-127). 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 Bandura, A. (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pp.7-24). NJ: Prentice-Hall.
- Ciżkowicz, B. (2021). Validation of the Short School Helplessness Scale (SBS-S). *Educational Studies Review*, 1(32), 251-270. doi:10.12775/PBE.2021.015
- Crandall, V. C., Katkovsky, W., & Crandall, V. J. (1965). Children's beliefs in their

- own control of reinforcements in intellectual-academic achievement situations. *Child development*, 36(1), 91-109. doi:10.2307/1126783
- DeVellis, R. F. (2016). *Scale Development*(pp.131-153). CA: Sage Publications.
- Floyd, F. J., & Widaman, K. F. (1995). Factor analysis in the development and refinement of clinical assessment instruments. *Psychological Assessment*, 7(3), 286-299. doi:10.1037/1040-3590.7.3.286
- Gregor, M. A., & O'Brien, K. M. (2016). Understanding career aspirations among young women: Improving Instrumentation.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24(3), 559-572. doi:10.1177/106907271559953
- Hair, J. F., Black, W. C. , Babin, B. J., & Anderson, R. E. (2014). *Multivariate data analysis* (pp. 600-638). London: Pearson.
- Kline, R. B. (2023).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pp.156-179). NY: Guilford publications.
- Luse, A., & Burkman, J. (2022). *Learned helplessness attributional scale* (LHAS).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151, 623-634. doi:10.1016/j.jbusres.2022.07.001
- Metheny, J., McWhirter, E. H., & O'Neil, M. E. (2008). Measuring perceived teacher support and its influence on adolescent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6(2), 218-237. doi:10.1177/1069072707313198
- Mikulincer, M. (1994). *Learned helplessness: A coping perspective*. NY: Plenum Press.
- Osborne, J. W., & Costello, A. B. (2004). Sample size and subject to item ratio in principal components analysis. *Practical Assessment, Research, and Evaluation*, 9(1), 1-9. doi:10.7275/ktzq-jq66
- Pedhazur, R. J. (1997). *Multiple Regression in Behavioral Research: Explanation and Prediction* (pp.794-811). CA: Harcourt Brace College Publishers.
- Quinless, F. W., & Nelson, M. A. M. (1988). Development of a measure of learned helplessness. *Nursing Research*, 37(1), 11-15.
- Sasikala, S., & Karunanidhi, S. (2011).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perception of parental expectations inventory. *Journal of the Indian Academy of Applied Psychology*, 37(1), 114-124.
- Seligman, M. E. P. (1975). *Helplessness* (pp.407-411). NE: Freeman.
- Zuckerman, M., & Lubin, B. (1965). *Manual for the Multiple Affect Adjective Check List* (pp.1-24). NJ: Educational and Industrial Testing Service.

ABSTRACT

Adaptation and validation of a school learned helplessness scale-short for Korean elementary school students*

Cho, Eunhye** · Byun, Jooyoung***

This study aimed to translate and validate the Korean version of the School Learned Helplessness Scale – Short Form (Ciżkowicz, 2021). After obtaining permission from the original author, the scale was translated into Korean and back-translated through a standardized linguistic validation process. Content and face validity were confirmed by experts and elementary students, and the finalized Korean version was approved by the Institutional Review Board. Data were collected from 333 fifth- and sixth-grade students in Korean elementary schools through an online survey conducted in September 2024.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supported a three-factor structure—cognitive deficit, emotional deficit, and motivational deficit—with acceptable model fit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factor loadings. Criterion validity was established through significant correlations with existing measures of learned helplessness, self-efficacy, teacher support, and career aspiration. Reliability analysis showed good internal consistency across items and subscales.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Korean version of the School Learned Helplessness Scale – Short Form is a valid and reliable tool for assessing learned helplessness in school contexts. It may serve as a useful instrument for identifying students at risk and for informing educational support and further research.

Key Words: learned helplessness, adaptation and validation of scale, elementary school students

* This paper is a revised and supplemented version of the part of 2024 Future-Oriented Policy Study Project conducted by th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of Korea.

** Buljung Elementary School, Teacher

***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Research Assistant, Corresponding Author, bji@nypi.re.kr